

운흥사 오래된 차나무...초의 스님 닮았나

초의선사 출가 길-운흥사

초의선사(1786~1866)는 조선 후기의 대선사로서 다도를 정립해 다성(茶聖)으로 불린다. 초의학술문화원(이사장 용운)은 초의 스님의 자정신을 기리며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초의의 길' 순례를 3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1월 26~27일 초의선사 탄생지인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에서 출가처인 나주 운흥사까지 초의의 길 첫 순례길을 열었다. 눈이 오는 와중에도 35명의 불자들이 수행하는 마음으로 길을 걸었다. 박종길 작가(세한대 생생교육원 전담교수, 前 목포과학대 교수)의 글을 통해 초의 스님 출가의 길을 따라가 본다.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이 땅에서 태어나 많은 중생들에게 참 마음과 깨우침을 주었고 후세인들에게 마음의 등불을 켜주신 초의 선사. 어려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선사의 위대한 업적을 재조명해 보고 선사의 참 삶을 통해서 지혜의 해답을 찾고자 한다.

지금으로부터 213년 전 초의 선사가 수행을 행했던 그 길을 따라 함께 걸으며 선사의 사상과 참 삶에 대해 다스나마 마음을 다져 보고자 한다.

초의 선사는 위대한 예술인으로 이 땅에 차(茶)의 향기를 널리 퍼지게 했으며 선사상을 통해 참으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던 분이시다.

그 출발은 출가의 발심에서부터였다. 1월 26일 오전 8시 선사의 탄생지인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旺山里)의 초의 선사 사당에서 순례단은 참배를 통해 순례의 시작을 알렸다. 초의 선사가 출가를 위해 걸은 길은 길라잡이 용운 스님이 안내를 맡았다.

'초의의 길'이라 부른 이 길에는 마침 조용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순례길을 축복하는 듯한 날씨에 35명의 초의의 길 걷기 참가자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나섰다.

초의 선사가 즐겨 걸었던 마을길을 지나 옛 포구였던 중등포(中登浦) 저수지 둑길을 따라 유교리 앞으로 지나갔다. 초의 선사의 출가처로 알려진 운흥사로 가는 길이이다.

초의 선사가 걸었던 길은 너무나 많이 변해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옛 산의 형체는 그대로 있어 그 길을 따라 더듬어 길을 재촉했다.

중등포는 유교리 앞 계곡의 물이 흘러 바다와 만나는 포구 마을이었다. 걷고 있는



순례길에는 눈이 내려 초의가 느꼈을 고향에 대한 애절함을 더욱 느끼게 했다. 순례단은 왕산리에서 운흥사까지 이틀에 걸쳐 걸었다.

우리들과 같이 자신의 집을 떠나 중등포 앞을 지나며 초의 선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했다.

우리에게 고향이란 정겹고 그리운 대상이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평생 동안 잊지 못한다. 그것이 비록 고향은 삶이었다 해도 그 고향을 추억으로 승화시켜 두고두고 잊지 못한다.

훗날 초의 선사는 귀고향(歸故鄕)이란 시를 통해 고향에 대한 애절함을 표현했다.

“멀리 고향을 떠난 지 40여년 만에 희어진 머리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왔네. 새 터의 마음은 풀에 묻혀 집은 간데없고 옛 묘는 이끼만 끼어 발자국마다 수심에 차네. 마음은 죽었는데 한은 어느 곳으로부터 일어나는가, 피가 말라 눈물조차 흐르지 않네. 외로운 중(僧) 다시 구름 따라 떠나노니 아서라 수구(首邱)한다는 말 참으로 부끄럽구나”

여우는 죽으면서도 머리는 고향 쪽을 향한다는 말이 있다. 말년의 초의 선사가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했는지 사에 드러난다. 그런 초의 선사가 고향을 떠날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동기가 어떻게 고향이 그리웠을 것이다.

집을 나서서 한참 가다가 돌아보니 떠나온 마을이 멀어지고 앞산에 가려 마을도 길도 보이지 않았다.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했을 초의 선사를 떠올렸다.

출가의 결심으로 길을 나섰던 초의 선사의 나이는 15세였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속세와의 이별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 것인가.

순례단은 초의 선사의 그 심정을 헤아리며 걷고 또 걸었다. 길을 걸으며 선사가 선택한 출가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했다.

일상에서 걸음걸이가 부족했던 참여자들을 배려해 4km를 걷고 10분씩 휴식하며 여러 마을 앞을 지나 일로읍(一老邑) 회산

213년 전 15세 소년의 출가 길 조선시대 운흥사 380칸 대찰 6·25때 전소...대웅전 등 복원

연꽃밭쪽 앞에 당도했다. 다시 길을 재촉해 무안군 몽탄면과 나주시 동강면 사이를 흐르는 영산강(榮山江)에 설치된 몽탄대교에 도착하니 시계는 어느덧 한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몽탄대교가 없었을 당시, 영산강 자락에는 나무터가 있어 작은 목선으로 사람들의 왕래를 도왔다. 아마 초의 선사도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넜을 것으로 생각된다.

점심을 하기로 한 식전배위 까지는 한참을 더 걸어야 하기 때문에 걸음을 재촉했다. 점심 식전에 도착하기로 한 식전배위, 하지만 도착한 시간은 1시를 훌쩍 넘어있

었다. 아침부터 걸은 거리는 20km 가량이 됐다.

식전배위는 나주시 동강면 대정 3리 길 옆에 있는 평편한 바위다. 후백제 군사들이 인근 대정 2리 동진마을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태봉국 왕건이 후백제를 공격해 나주 공산면 상방리 복사소리 전투에서 승리하자 후백제 병사들이 퇴각하며 이 바위에서 아침을 먹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식전배위에서 점심을 먹고 3시 무렵 나주시 동강면소재지에 도착했다.

길은 길었다. 차츰 뒤쳐진 일행과 다리의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나오고 이들을 뒤따라오는 차에 태우고 걷는 것을 계속했다. 다음날의 일정과 초행자들의 건강을 고려해 나주시 공산면 복사소리에서 첫날의 일정을 마쳤다.

숙소는 초의 선사의 탄생지인 왕산리. 왕산리로 돌아가는 버스에 승차 후 나주 관광해설사 김지훈 씨가 들려주는 나주의 자연과 역사 문화 등을 듣다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1월 27일의 날이 밝자 다시 순례를 떠났다. 간밤에 내린 눈이 얇게 깔려 있었지만 큰 추위는 아니었다. 참가자들은 어제의 강행에 놀랐는지 진통제며 근육이완제 등 서로 약품을 주고받으며 단단히 각오를 다졌다. 길라잡이 용운 스님도 그리고 참가자들도 아직 근육통이 풀리지 않았는지 걸기를 불편해 했다. 27일의 일정은 나주 운흥사 입구부터 시작했다.

덕룡산(德龍山) 운흥사(雲興寺)는 초의 선사가 15세(1800년)에 출가수행 한 사찰이다. 고려시대에 두 차례에 걸쳐 중창했고, 조선시대에 들어 1573년(선조 6년), 1684년(숙종 10년), 1758년(영조 34년)에 중창했다.

초창기에 불렀던 도성암이라는 이름은 용점사(熊岾寺)로 개칭되었으며 16세기 이후 웅치사(熊峙寺), 18세기 후반부터 운흥사로 다시 개칭됐다고 전해진다. 조선시대에는 380칸 규모의 대사찰로 15개의 전각과 10개의 요사채 등 20개의 암자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1694년과 1702년 두 차례 화재와 한국전쟁 때 전소됐다. 현재는 해원 스님이 1998년에 부임하며 점차 불사를 이루고 있는 사찰이다.

대웅전을 사글하며 금동여래입상(전남 유형 문화재 제 260호)이 발견됐다. 현재 대웅전에는 금동여래입상을 본떠 조성한 불상을 모셔놓고 있으며 관음전에는 주존불이 모셔져 있다. 팔상전에는 고려 후기 불상으로 추정되는 석조여래좌상이 모셔져 있는데 이 불상은 1968년 나주 동강면 옥정리에서 발굴돼 운흥사에 봉안했다가 2001년에 운흥사로 옮겨온 것이다.

영산포 버스터미널을 지나 길을 나서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운흥사 방향으로 길을 옮겨도 눈은 계속 내렸다. 나주의 특산물인 배나무밭 과수원에 하얀 배꽃 대신 난꽃을 피워 추억의 여행처럼 운치를 더했다.

운흥사에 도착하자 석장승이 일행을 맞



나주에 있는 후백제 설화가 담긴 식전배위(사진 위)와 첫 순례를 마치고 운흥사에서(사진 아래)

이했다. 운흥사 석장승은 남장승과 여장승이 길 양 옆에 마주보고 서있는 구조다. 남장승은 상원주장군(上元周將軍), 여장승은 하원당장군(下元唐將軍)이라 새겨져 있다. 여장승 뒷면에는 강희 58년(1719년) 화주승(化主僧) 변학(學)과 별좌(別座) 김노죽운(金老脚尹)이 새겨진 글이 있다. 주지 해원 스님의 안내로 참배 후 차를 마셨다.

해원 스님은 운흥사의 오래된 차나무에 대해 얘기했다. 두 차례 화재 때 화마의 피해를 입었지만 밑동이 살아 다시 새순이 돌아 현재 큰 차나무가 된 나무였다. 마치 초의 선사의 수행 가풍과도 같은 나무라 생각이 들었다.

안양에서 온 이재숙 씨는 “눈길을 걸으니 나이를 잊은듯 먼 시간여행을 온듯한 느낌”이라며 “이번 기회에 초의 선사에 대해 한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온 유복열 씨는 “초의 선사의 수행이 당시에는 길이 좋지 못해 어려웠을 텐데 먼길을 걸어 걸어 수행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하다”고 말했다.

여복 송유의 조선시대를 지나 지금까지도 초의 선사의 사상과 다도가 전해지는 것은 수많은 이들을 감화시킨 참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첫 순례를 마쳤다.



박종길(前 목포과학대 교수)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0-9호]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승사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대자비 보살(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원로회
고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의장 석무겸 석만월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총무부장 석운오
재무부장 석범담
정보부장 석보각
행사부장 석지혜
사무총장 석범오

교구총무원
구미총무원장 석혜광
전북총무원장 석실산
마산총무원장 석범경
전남총무원장 석범진
진주총무원장 석덕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총회
총회의장 석덕오
부의장 석월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현중

사정원
사정원장 석범경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의장 석범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해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의장 석범승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의장 석대명
부의장 석운오
강원원장 석범오

중앙위원회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문화예술위원장 조치원
중앙행정위원장 차정호
중앙정책위원장 박만석
중앙운영위원장 손연자
중앙기획위원장 조길환

충분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부산 제2총무원 청사개원

총무원 원장(직) 010-3565-2462
해광사(총무소) 051-505-2461
해광사(팩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6 (식물원 39길 24-7)

대원불교조계종 종립교육원 행자모집 중

총무소 051)893-3346
학장(直) 010-3564-6604 현우 범오
부산 진구 당감1동 232-3 현우정사(백양대로 50-1호)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증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충분산** : 경남 양산시 주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 입종 안내 ◆

2) 입종 후 발급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응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중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충분히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모집을 모집합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여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